|  |
| --- |
| Week 28 성경 문답지 & *묵상과 기도* 2020년 7월 12일 ~ 7월 18일 |

                         교 구:                    구 역: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음을  여는 찬양  (찬송가) | | 7월 12일 | 13일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 453장  (통506장) | 195장  (통175장) | 66장  (통20장) | 343장  (통443장) | 23장  (통23장) | 299장  (통418장) | 370장  (통455장) |
| 일년 일독 스케줄 | | 잠 11-14 | 잠 15-18 | 잠 19-22 | 잠 23-27 | 잠 28-31 | 전 1-4 | 전 5-8 |
| 7월  12  주일 | **빌립보서**  **3장** | **\* 구원을 위한 경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 경계하면서 자신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명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만 성도는 바울과 같이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 | | | | |
| 문제 |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 )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 | | | | | |
| 묵상: | 바울이 얻은 결론은 육체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심지어 ‘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로, 앞서 말한 개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 | | |
| 기도: | 주여,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소서. | | | | | | | |
| 7월  13  월요일 | **시 편**  **135편** | **\* 택함 받은 자의 찬양**: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감사를 다룬 본시는 시134편과 115편이 부분 적으로 합성되어 있는 구성을 보여 줍니다. 저자 및 배경이 불확실한 이 시의 두드러진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묘사입니다. | | | | | | |
| 문제 |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 )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 | | | | | | |
| 묵상: |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숙고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 경건을 위해 매우 유익합니다. 말씀과 내 삶에 드리운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겨보십시오. 열방과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요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 | | | | | | |
| 기도: | 주여,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 | | | | | | |
| 7월  14  화요일 | **시 편**  **136편** |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외형상 독특한 통일성을 지닌 작자 미상의 이 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이 '감사하라'로 시작하여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로 끝맺고 있는 이 시는 유월절과 신년절에 주로 낭송 되어졌습니다. 찬양대가 '감사하라'라고 부르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답송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 | | | | | |
| 문제 |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 )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 | | | | | |
| 묵상: |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은 신앙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문할 수 있고, 앞날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앞 소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 | | | | | | |
| 기도: | 주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찬양하게 하소서. | | | | | | | |

|  |  |  |
| --- | --- | --- |
| 7월  15  수요일 | **시 편**  **137편** | **\* 바벨론 포로의 노래**: 시인은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을 대변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은 단순한 향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영광에 대한 갈구입니다. |
| 문제 |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 )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 |
| 묵상: | 부정한 땅에서도 시인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사 55:3)를 붙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 |
| 기도: | 주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 |
| 7월  16  목요일 | **시 편**  **138편** | **\*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악간에 공의로 판단하여 주심에 대하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근거로 구원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 문제 |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 )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 |
| 묵상: |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가십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난이나 원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낮은 자(다윗)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와 자신을 동일시해주십니다. 그는 이것이 성도의 영광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 |
| 기도: | 주여, 하나님이 저희 안에 완성하실 언약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소서. | |
| 7월  17  금요일 | **시 편**  **139편** | **\*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감찰하시어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시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악인의 행위를 보응하여 주실 것을 구하며 자신을 살피시고 연단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 문제 | “하나님이여 ( )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 |
| 묵상: |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그분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결코 하나님에게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이 사실은 숨 막히는 부담이 아니라, 결국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 |
| 기도: |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하소서. | |
| 7월  18  토요일 | **시 편**  **140편** | **\* 공의를 구하는 간구**: 시인은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악인이 그 궤계의 성공으로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과 의인을 훼방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모든 성도의 심정입니다. |
| 문제 | “( )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 |
| 묵상: |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똑같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취약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할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똑같이 악을 갚기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 |
| 기도: | 주여, 악한 비방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도 누군가를 말로 모함하지 않게 하소서. | |

\*성경문답지는 본 교회가 2013년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개정개역판 성경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